

노태문 “전작 웃도는 성과 자신… AI OS로 리더십 확고히”

〈삼성전자 대표〉

언팩 직후 美 현지 기자간담회
2년 가격 동결 기조조정 배경 설명
메모리급에 가격인상 불가피

S26 울트라 512GB 254만5400원
시리즈 첫 200만원대 가격 형성
구글과 ‘AI OS’ 공동개발 첫 적용

“삼성전자는 원가 상승으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대표이사 사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삼성 갤럭시 언팩 2026’ 행사 직후 열린 국내 기자 간담회에서 2년간 가격 동결 기조를 조정할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 이후 가격을 동결해 왔으나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



2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노태문 DX부문 사장이 3세대 AI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갤럭시 시리즈에서 512GB 모델이 200만원을 넘는 적이 없지만 이번 갤럭시 S26 울트라 512GB 모델은 254만 540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상회했다.

그는 “하드웨어(HW) 부품을 줄이더라도 동급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 원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

려고 한다”며 “이 같은 접근은 수율 개선 등 전반적인 제조 효율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노 사장은 “전작을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며 S26 시리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갤럭시S26 판매 목표치와 거래선들의 초기반응과 관련, 글로벌 조사기관에서

는 3700만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4000만대 수준으로 높여 잡고 있다.

노 사장은 “작년 이맘때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해 전작을 뛰어넘는 판매를 약속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며 “출시 초반의 일시적 수요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실사용 평가와 입소문이 쌓이면서 반응이 더 좋아졌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갤럭시 S25 시리즈도 S24 시리즈 대비 좋은 반응과 더 나은 판매 실적을 얻었다”며 “S26 시리즈도 거래선 평가와 제품 완성도, 품질 경쟁력을 감안할 때 전작을 웃도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과 공동 개발한 AIOS의 구체적 개념 및 출시 목표 일정도 언급했다. 노 사장은 “AI가 하나의 단일 기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OS 레벨까지 내려와서, AI 기능이 여러 기능·서비스·생

태계까지 연결된다는 개념이다”며 사용자들이 일일이 앱을 찾아갈 필요 없이 AI가 엔드투엔드로 작업을 매끄럽게 처리해 줘서 사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AI OS라고 정의했다”고 했다.

이어 “가장 처음 적용된 모델이 갤럭시 S26 시리즈이고, 이를 시작으로 AI OS를 점점 더 고도화시켜나갈 것이다. 구글과 타이틀하게 협력해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사장은 AI 활용에 대한 기대와 달리 여전히 어렵거나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얘기하며 누구나 쉽게 쓰는 AI를 구현하는 것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플래그십부터 A시리즈까지 전 세그먼트에서 고른 성장을 통해 모바일 AI 리더십을 한층 확고히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샌프란시스코(미국)=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지구를 위한 갤럭시’ 친환경 비전 공개 제품 설계부터 재활용 소재 내재화

2030년 순환경제 강화 로드맵
자원·물·생태 관리 목표도 제시
갤럭시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

삼성전자가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화두를 던지며 친환경 비전을 공개했다. 제품 설계와 생산,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삼성 갤럭시 언팩 2026’에서 모바일경험(MX)사업부의 환경 지속가능 비전인 ‘지구를 위한 갤럭시’의 진행 현황과 2030년까지 달성할 신규 목표를 발표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DX부문장)은 “삼성전자는 지속가능성을 사업의 중심에 두고, 제품 설계와 자원 관리를 포함해 기기의 가치 창출 전반에 반영했다”며 “2030년까지 보다 광범위한 환경 영향을 다룰 수 있는 목표로 확대해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비전 선언 당

시 수립했던 ‘2025년 4대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해 모두 달성했다.

우선 갤럭시 신제품에 재활용 소재 적용을 핵심 중점 과제로 삼았다. 폐어망 재활용 소재를 시작으로 현재 갤럭시 제품에는 플라스틱, 유리, 알루미늄 등 10종의 재활용 소재가 투입됐다. 패키지 내 일회용 플라스틱을 배제했고 충전기 대기 전력은 제로(0) 수준에 도달했다. 전 세계 10개 모바일 사업장은 이미 ‘매립 폐기물 제로’ 인증(UL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한 상태다.

이어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달성할 확장된 새로운 목표도 제시했다. 핵심은 자원 순환, 수자원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이다.

삼성전자는 자원 순환성 제고를 위해 향후 모든 갤럭시 모바일 제품의 핵심 모듈(배터리·디스플레이·카메라 등)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재활용 소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갤럭시 생태계 전반에서 환경 영향을 줄일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반도체·로봇’ 강화… 이사회 기술중심 재편

내달 18일 주총서 김용관 이사 선임안
이사회 절반 ‘반도체·로봇’ 전문가
HBM 로드맵·휴머노이드 신사업 추진

삼성전자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와 로봇 분야에 힘을 쏟는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1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최하는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김용관 DS부문 경영 전략 총괄 사장을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김용관 사장이 사내 이사로 선임될 경우 이사회 10명 중 절반이 반도체·로봇 전문가로 채워진다.

앞서 전영현 DS부문장 부회장은 대표이사 선임과 함께 사내이사에 올랐다.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 겸 반도체연구소장 사장으로 사내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사외이사도 기술 중심으로 재편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전문가인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영입했다.

2024년에는 로봇 전문가인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김 사장이 합류하면 이사회 10명 중 5명이 반도체·로봇 분야 전문가가 된다. 이를 통해 핵심 사업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KB금융그룹 |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Tuesday Wednesday Thursday

2 3 4

9 11

16 18

23 24 25

**KB손해보험이 지키는
1년 365일 든든한 일상!**

**일상을 지키는 힘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